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과 단점을 들추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29일)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만해 스님 일대기 영화 만든다

만해선양지방정부協 정기총회서 제안·논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내년 3.1독립운동 100년을 맞아 근대 선지식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 일대기의 영화화가 추진된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월 6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컨퍼런스홀에서 2018년 정기총회와 좌담회를 열고 협의회 회계보고와 향후 지자체별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홍성군은 주요추진사업 계획 발표에서 만해 스님 일대기 영화화와 협의회 소속 지자체 공동 제작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홍성군이 시네마서울과 함께 추진하는 만해 스님 일대기 영화는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을 제목으로 한명구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영화배우 전광열과 양동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영화 촬영 기간은 1년으로, 홍성의 만해 스님 생가지부터 출가지 백담사, 첫 안거지 건봉사, 열반지 심우장 등 만해 스님 관련 유적지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4월 제작 발표를 시작해 3.1독립운동 100년을 맞는 3월 이전에 개봉한다는 게 홍성군의 계획이다.

제작 금액은 10억 원이 소요되며, 지자체 부담액은 3억 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성군은 협의회 소속 6개 지자체에서 5000만 원을 공동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3.1운동 100년 기념 영화 제작으로 만해 스님을 선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협의회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자체 유대 강화 등 모범 선례 구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연예 · 영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실무진과의 논의를 거쳐 2월 중 영화 제작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자체별 다양한 만해 스님 선양사업 계획들이 공개됐다. 만해 스님 일대기를 영화화하는 홍성군에서는 만해 스님 생가지 일대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 테마파크에는 호수데크와 체험공간 등이 구비된 야외박물관이 들어서며, 현재 토지 매입과 기본계획들은 수립됐다. 홍성군은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월 중 실무진 논의해 결정
전광열 · 양동근 등 출연 예정
3.1운동 100주년 맞아 개봉

지자체 만해 선양사업 '활발'
성북구, 심우장 사적 지정부터
국내 · 외 만해로드 장정 진행도

만해 스님 열반처인 심우장이 있는 성북구의 선양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성북구는 현재 서울시지정문화재인 심우장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현재 성북구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에 착수했으며, 연구를 바탕으로 5월까지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심우장 일대를 만해 스님 기념관과 독립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진행한다. 기념관은 심우장 일대 10필지인 1759㎡의 부지를 매입해 연면적 354㎡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된다. 기념관에는 문학관과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가 주최하고 동국대 만해연구소와 성북문화원이 주관하는 '3.1 독립운동 99주년 만해로드 대장정' 계획도 발표됐다. 오는 2월 25~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에서 열리는 만해로드 장정은 극동 지역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들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꾸며진다. 귀국일인 2월 28일에는 심우장에서 3.1독립운동 99주년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8월 12~14일에는 광복 73주년을 맞아 충남 홍성군과 강원도 속초시 · 인제군 · 고성군, 서울 성북구 · 서대문 등서 국내 '만해로드 장정'도 진행된다.

주관 단체인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향후 중국과 일본에서의 만해 스님의 행적을 탐방하는 국외 만해로드와 만해 스님과 관련해 남북불교문화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탐방 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재석 동국대 만해연구소장은 "만해 스님은 자신과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일주를 기획하고 실천에 옮겼던 국제인이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안목과 에너지를 불교 정신으로 융합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다"며 "이번에 열리는 3.1독립운동 99주년 기념 만해로드 대장정은 내년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는 서울 성북구청과 서대문구청, 충남 홍성군청, 강원도 인제군청과 고성군청, 속초시, 각 지자체 교육청과 동국대 만해연구소로 구성돼 있다.



"세배 받으세요!"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운희)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 설날맞이 행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개최했다. 7일 열린 '명절문화체험'에서는 회현어린이집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유아들이 참여해 우리의 설 명절 문화를 체험했다. 곱게 설빔을 차려입고, 세배를 배우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한편, 중림사회복지관은 행사 기간동안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어르신 전통놀이 한마당, 떡국 나눔, 떡 썰기 대회 등을 진행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세계 각국 정상, 월정사로 향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맞아 만찬 및 사찰문화 체험

평창올림픽을 맞아 내한한 세계 정상들이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 체험을 위해 평창 월정사를 방문한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2월 18일 오후 1시 평창 월정사 대법륜전서 정부 여권 인사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을 비롯한 IPC 위원들도 3월 7일 월정사서 역시 만찬과 문화체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 정상들은 다도와 명상 등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정사 행정실장 두엄 스님은 "각국 정상들이 선수단 격려 등 공식 활동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초청 내빈들에게 사찰음식과 함께 전통 국악 공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2월 10일에는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이 월정사를 찾아 사찰음식 만찬을 즐겼다. 또한 9일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조정래 소설가, 은반여왕 카타리나 비트 등이 월정사서 성화 봉송을 진행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사진 왼쪽)와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와 설 특집 B섹션 8면 발행 | 연휴 관계로 다음주 휴간합니다.

'멸빈자 사면안' 다룰 중앙종회 3월 20일 개원

의안 접수 3월 13일까지

1년간 이월된 '멸빈자 사면안'을 다시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20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0차 임시중앙종회 개원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10회 임시회는 3월 20일부터 5일간 이어진다. 의안 접수는 3월 13일까지.

연석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서는 지난 회기서 이월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영축총림 및 조계총림 방장 추대의 건, 초심호계원장 원종 스님 후임 선출의 건, 재심호계위원 진우 스님 후임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승가학원 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특히 멸빈자 사면안은 지난해 3월 208회 중앙종회부터 이월된 안건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대탕평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 설정 스님은 이례적으로 연석회의에 참석해 의장단을 비롯한 중앙종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스님은 "총무원장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중앙종회인 것 같다. 언제든 진솔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종회에 앞서 영축총림 통도사와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각각 3월 9일과 16일 열린다. 윤호섭 기자

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독자님들의 성원에 두손모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불자님들 가정에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시길 발원합니다.
풍성한 기운이 충만한 설 명절 되세요.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